“화마 아픔 가시길” 불자들 후원 손길 이어진다

비구니회, 국가유산청 방문 격려
동국대 구성원 십시일반 1억여원
여성불자회 2370만원…회복 염원
원로의원들, 고운사 직접 방문키도

임은호 · 김내영 기자 imeunho@hyunbul.com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 사찰과 이재민들을 지원하는 불자들의 후원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왼쪽부터 전국비구니회, 동국대, 전국여성불자회 전달식 모습.

지난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염원하는 불자들의 후원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유산 보호와 지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성금을 전달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격려하기도 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4월 29일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 보호 및 불교문화유산 소산 격려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영남 지역의 대규모 산불 발생 당시 주요 사찰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방염포를 설치하고 성보를 이운하는 등 화재 방재에 노력한 국가유산청에 고마움을 전하기 위함이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전국비구니회의 성금 기탁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최선을 다해 고군분투했지만 천년고찰 고운사와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이 전소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최근 민간기업 하이브가 고운사 피해 복구 등에 10억원을 지정 기탁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소실된 문화유산 복구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청장은 “산불 당시 지역 돌봄단체 25곳이 나서 방염포 설치 등 긴급 대응에 힘을 보탰다”며 “산불은 진화됐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독성 화합물과 냄새 등이 남아 있어, 성금은 이들 단체를 돕는 데에도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예방 및 대응 체계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에 회장 광용 스님은 “개인의 실수로 시작된 산불이 국가적 재난으로 번진 것이 가슴 아프다. 종교인으로서 자책의 마음도 든다”며 “잠 못 자고씻지도 못한 채 헬기로 불을 끈 산림청과 소방관들, 그리고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애쓴 국가유산청 모두 정말 고생 많았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스님들이 사회에 무심한 것 같지만, 매일 새벽 국태민안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전국의 비구니 스님들이 어렵게 모은 성금인 만큼 그 의미에 맞게 잘 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비구니회는 5월 16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마을 4곳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할 계획이다.

동국대 서울 및 Wise 캠퍼스와 의료원 등 동국 구성원들은 4월 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1억 132만 6000원을 쾌척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찰과 지역민을 돕기 위해 학교와 의료원이 같은 기간 모금을 시작했고 현재도 모연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특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큰 감동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국여성불자회(회장 김의정)도 2370만원을 전달하며 피해 사찰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회복을 발원했다.

김의정 전국여성불자회장은 “4월 19일 고운사를 방문하는 순례를 다녀왔다”며 “피해 현장을 다녀와보니 참담한 심정이었다. 적은 금액이지만 불자로서 당연히 동참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성금을 모았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큰 피해를 입은 사찰과 지역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농협중앙회는 4월 29일 산불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발원하며 자비나눔 기금 3000만원을 희사했다. 강호동 회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농협을 사랑해주시고 성원해주셨기에 이러한 기부가 가능했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TN불교TV는 4월 9일 5억원에 이어, 4월 30일 3억 4130만원을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다. 구본일 대표이사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한 사부대중의 온정이 모여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토회(지도법사 법륜 스님)도 힘을 보탰다. 법륜 스님은 5월 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산불 재난 및 문화유산 복구 지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스님은 “산불로 고운사를 비롯한 문화유산이 크게 손실됐다는 소식을 듣고 복구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기금을 마련했다”며 “정토회에서도 피해 주민 3000가구에 간장과 고추장, 기름 등 식재료 세트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종단은 사찰과 지역민에 2차에 걸쳐 지원금을 전달했고, 앞으로 식재료와 가전제품 등 15억 상당의 긴급 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자광 스님)는 4월 22일 의성 고운사를 직접 방문, 화재에도 제 모습을 잃지 않은 대웅전을 참배하고 주지 등운 스님에게 긴급모금 기금 3400만원을 전달했다.

등운 스님은 감사를 표하며 “종단의 큰스님들의 관심에 감사하다”면서 “복원불사의 원만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 제주항공·산불 구호 지원 활동자 표창

4월 29일, 복지관 8곳 표창
양주회암사 · 서정대 · 화목회 등
미얀마 · 산불 구호 후원금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긴급구호단 활동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긴급구호 상황에서 적극 활동해 준 기관과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제주항공 사고, 영남 지역 산불 등 긴급 상황에서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펼친 대한불교조계종긴급구호단을 격려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긴급구호단 활동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긴급구호 상황에서 적극 활동해 준 기관과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표창 기관은 총 8곳이다.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건태),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재진), 우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주성), 하당노인복지관(관장 도정 스님)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탈주로 이탈 사고 현장에서 부스를 설치 운영해 유가족들을 지원했다.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했다.

영남 지역 산불 이재민 지원 및 구호활동을 펼친 복지관에도 표창이 이어졌다. 의성노인복지관(관장 휴담 스님), 안계노인복지관(관장 김대규)은 의성 지역 이재민을 지원하는 부스를 운영했으며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천진숙),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승배)은 영남 지역 산불 이재민 및 사찰 산불 예방 지원 활동을 펼친 점에서 이날 표창을 받았다.

진우 스님은 “긴급구호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도모했다”면서 “함께 가슴 아파하며 유가족과 이재민을 위로한 정성은 그야말로 자비의 큰 마음”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현장에 있는 복지관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음 모아줘 감사하다”거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복지관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모델화 함으로써 향후 재난 대응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산불 이재민과 미얀마 지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구호 후원금 전달식도 있었다.

양주 회암사(주지 인공 스님)와 서정대 불교동아리, 불조사리기도회는 미얀마 지진 긴급구호 활동 후원금 1473만 4360원을 전달했다. 서정대 불교동아리는 미얀마 출신 학생들이 회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의미를 더했다.

대한불교조계종자원봉사단 화목회(회장 이문희)는 진우 스님에게 산불 이재민 긴급구호 후원금 1024만 7060원을 전달했다. 임은호 기자

산불시 전통사찰 선제 대응 가능해지나

정희용 의원, 문화유산 · 전통사찰법 개정안 발의

현상변경 허가, 재난 한정 예외
전통사찰 내 수목제거 등 명문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문화유산과 전통사찰을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문화유산법 개정안)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통사찰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4월 28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문화유산법 개정안’과 ‘전통사찰법 개정안’은 산불 등 재난으로 문화유산과 전통사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문화유산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 등 긴급을 요하는 재해·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선조치’를 하고,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사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전통사찰법 개정안’을 통해 △전통사찰 주변 수목 제거 △방염포 설치 등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 △배수로 및 석축 정비 등 수해 예방 조치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긴급 보호 및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2025 한마음과학 국제심포지엄
현대 사회에서의 마음공부와 치유
일시 : 2025.5.31.(토) 장소 :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
개회식 13:30 ~ 13:50 사회: 장미란 (삼성서울병원 연구원)
발 표 14:00 ~ 17:20 좌장: 박소진 (신한대학교 교수)
수용전념치료(ACT)와 불교 – 융합과 분화
발표: 케네스 펑 (토론토 대학교 교수)
토론: 최명희 (경북대학교 강사)
마음 공부와 자기 치유 – 붓다의 깨달음을 중심으로
발표: 최훈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겸임교수)
토론: 이준엽 (약산애 한방병원 원장)
고령화사회 노인 관련 이슈와 대처방안
발표: 김주현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토론: 김준형 (오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외래교수)
폐회식 17:20 ~ 17:30
YouTube 한마음선원 공식채널 생중계
자료집은 한마음과학원 사이트(https://hansi.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최: (재)한마음선원 주관: 한마음과학원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2025 International Hanmaum Science Symposium
Spiritual Practice and Healing in Modern Society
May 31st, 2025 Hanmaum Seonwon, Anyang, Republic of Korea
Opening Session 13:30 ~ 13:50 Moderator: Miran Jang (Researcher, Samsung Medical Center)
Presentations 14:00 ~ 17:20 Moderator: So Jin Park (Professor, Shinhan University)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nd Buddhism – Convergence & Divergence
Speaker: Kenneth Fung (Professor, University of Toronto)
Discussant: Myeong-Hui Choe (Lectur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ind Cultivation and Self-Healing – Focusing on the Enlightenment of the Buddha
Speaker: Hoon-Dong Choe (Adjunct Professor,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Discussant: Junyeop Lee (Head, Yaksanae Hospital)
Issues and Countermeasures related to the Elderly in an Aging Society
Speaker: Joo Hyun Kim (Professor Emeritu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iscussant: June Hyoung Kim (Lecturer,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Osan University)
Closing Session 17:20 ~ 17:30
YouTube Watch Live on Hanmaum Seonwon YouTube Channel
Download the Symposium Proceedings on HanSI Website (https://hansi.org)
Host: Hanmaum Seonwon Foundation Organizer: Hanmaum Science Institute
Hanmaum Science Institute Hanmaum Seonwon Foundation